

‘코로나 불똥’ 튼 김경문호 올림픽 순항할까

무거운 분위기 속 첫 훈련...우려·논란 여전

‘사퇴’ 한현희 대신 ‘원정도박 전력’ 오승환 발탁

‘병역 혜택’ 선수 구성에 잡음 반복 ‘싸늘한 팬들’

‘두산·NC발 코로나 사태’가 한국야구 전반을 흔들고 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지난 1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소집 날짜가 앞당겨졌고, 당초 발표했던 24명의 명단과 다른 선수단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올림픽 대장정을 시작했다.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을 부른 ‘코로나 사태’가 대표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원정 호텔에서 여성 2명과 사적 모임을 한 NC 4인방 중 한 명인 박민우가 지난 14일 논란이 커져서 국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NC에 이어 한화 선수 3명과 키움 선수 2명도 호텔 사적 모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논란이 된 이는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있던 키움 투수 한현희다. 한현희는 수인 속소를 이탈하면서까지 서울로 이동해 문제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역시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두 선수는 ‘대표 후보’ 자격으로 많은 국민이 줄서서 기다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손쉽게 했지만, 술판을 통해 백신의 효과만 확인시켜줬다. 박민우는 문제의 술자리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대표팀 훈련은 시작됐지만 우려와 논란의 시선은 여전하다.

박민우와 한현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선택 받았지만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KBO리그는 물론, 대표팀에도 민폐를 끼쳤다.

이들은 ‘사퇴’라는 그럴듯한 말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KBO 역대 스캔들로 기록될 사건의 중심에 선 만큼 이들에게는 사퇴가 아니라 박탈이 어울린다.

대체 선수 선발을 놓고 오락가락한 기준도 논란

이다.

“미래”를 언급하며 내야수 박민우와 다른 포지션의 롯데 신인 좌완 김진욱을 선택한 김경문 감독은 한현희의 대체선수로는 ‘경험’을 갖도록 불확의 오승환을 불렀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부도덕한 일탈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과 KBO 징계까지 받은 오승환에게 역할을 맡긴 것은 아쉽다. 실력은 ‘골판왕’이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서는 자리이고, 야구판의 부도덕함에 지친 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선택이다.

“성직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의 감동은 끝났다.

멋진 플레이로 9연승 행진을 하며 한국 남자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이후 야구 대표팀은 ‘논란의 팀’이 되면서 눈총을 사곤 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의미보다는 ‘병역 혜택’이 야구대표팀의 최우선 목표·가치가 됐다. 자연히 대표팀 구성을 놓고 매번 잡음이 나왔다. 선수들도 ‘병역 혜택’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야구팬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자체도 약했다.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에 불참을 선언한 팀들이 나왔고, 변수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야구 일정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성직으로 야구판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더는 스포츠크렌들이 마구잡이 식 승리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 과정보다 중요시하고, 아름다운 2등도 기억한다.

약재 속에 출항한 ‘김경문호’의 선수들이 태극마크의 무게와 한국야구 미래를 생각하면서 팬들의 신뢰를 다시 쌓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김경문 감독이 18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훈련에서 그라운드를 거닐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골든슬램’ 욕심내네 조코비치 도쿄 간다

테니스남식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선언했다.

조코비치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자랑스럽게 세르비아 테니스 대표팀에 합류하겠다. 도쿄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적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남자 테니스 사상 첫 ‘골든슬램(골든슬램)’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올해 앞서 열린 호주오픈, 프랑스오픈에 이어 Wimbledon까지 제패한 조코비치는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우승하면 골든슬램을 달성한다.

한 해에 4대 메이저 대회와 올림픽 단식 우승을 독차지하는 ‘골든슬램’은 여자부에서만 슈테피 그라프(독일)가 1988년에 딱 한 차례 달성한 대기록이다.

따라서 조코비치의 금메달 획득 여부는 도쿄올림픽 남자테니스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조코비치는 앞서 이달 12일 Wimbledon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도쿄올림픽 출전 여부를 묻는 말에 “반반”이라고 답했다.

조코비치와 함께 남자 테니스 ‘빅3’로 불리는 로저 페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앞서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한편, 조코비치는 이날 트위터에 일본의 테니스 신동으로 불리는 여섯 살 고지모에게 올림픽 참가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함께 올렸다. 조코비치는 트위터에 “내 작은 친구 고지모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고 적었다.

조코비치는 도쿄행을 결심했으나, 다른 선수들의 올림픽 ‘불참 러시’는 계속됐다.

빅토리아 아자라카(14위·벨라루스), 안젤리크 케르버(22위·독일), 스페르라나 쿠츠네초바(41위·러시아) 등 3명의 여자 단식 50위권 선수가 이날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올림픽 개막 코앞인데...

남아공·체코팀 확진자 발생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럭비 대표팀 직원 한 명과 체코 대표팀 관계자 한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회 개막을 5일 앞둔 가운데 올림픽 관계자들의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NHK 등 일본 매체는 17일 “일본에 입국한 남아공 럭비 대표팀의 40대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해당 관계자는 전지 훈련 숙소가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의 한 병원에서 이송됐다”고 전했다.

남아공 럭비 대표팀은 13일 일본 나라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선수단은 공항 인근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17일 전지훈련지인 일본 남부 가고시마로 이동했고, 이동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남아공 럭비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들은 추가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체코 대표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AFP통신은 18일 체코 올림픽위원회 발표 내용을 인용해 “체코 프라하에서 전세기를 타고 도쿄에 도착한 체코 대표팀 관계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육일기는 되고 이순신 문구 안된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경기장 반입 물품 규제 논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육일기가 도쿄올림픽 내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육일기 디자인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며 정치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며 “육일기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중 입장이 허용된 일본 수도권 바깥의 경기장에선 육일기를 흔드는 일본 관중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육일기 사용을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사례로 판단하겠다고 대한체육회에 약속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다음 행보에 비상이 걸린다.

체육회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 ‘상우십이 손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아직도 세계 열두 척의 배가 있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시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신에게는 아직 5000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란 현수막을 선수촌 한국 선수단 거주층에 내걸었다가 흥역을

치렀다.

일본 언론과 극우 세력이 정치적인 메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IOC마저 올림픽 현장 50조 위반을 들어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자 체육회는 그런 것이라면 육일기 사용도 마찬가지라고 IOC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체육회는 IOC와 상호협의로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내리되 육일기에도 올림픽 현장 50조 위반이라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IOC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도쿄조직위 관계자는 “IOC와 대한체육회의 상호 협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육일기 취급 방침에 변동은 없다”며 경기장 반입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대립을 조장하는 일은 좋지 않다”고 발언한 만큼 IOC가 육일기 사용을 실제로 막을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해 일본의 육일기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 입구 풍경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도쿄 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 입구.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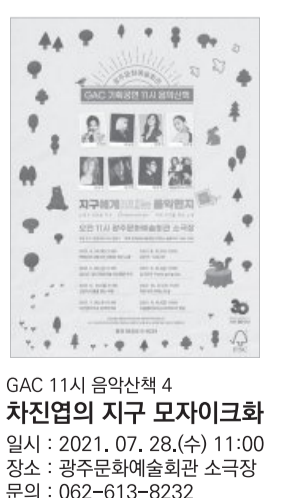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위도우
 - 2관 블랙 위도우
 - 3관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스페이스 캠프: 새로운 시대
 - 4관 랑종
 - 5관 블랙 위도우
 - 6관 랑종
 - 9관 랑종, 콰이어트 플레이스 2
 - 7관 씨네커플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오피리아,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 8관 씨네커플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발신제한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